
논 문

프랑스 산업 이전 정책과 파리 산업의 재편성*

— 제2차 세계대전 이후를 중심으로** —

류 은 하

- | | |
|---------------------|---------------|
| I. 서론 | IV. 기업 이전의 결과 |
| II. 도시 계획 관련법 및 기획안 | V. 결론 |
| III. 기업 이전 양상 | |

국문초록

1950년대부터 프랑스 정부는 다양한 법률과 도시 계획을 통해 파리 지역의 탈산업화를 시도했다. 이러한 법안들은 파리 지역에 기업이 확장되거나 신설되는 것을 통제하고, 산업체들이 이전할 경우 이전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정부 주도로 기업 이전이 이루어졌던 경우가 경제 위기로 폐업하거나 합병되어 사라졌던 경우보다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산업의 탈중양화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가장 산업화가 진전되었던 파리와 파리에 인접한 근교의 경우, 산업체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또한 기업 이전으로 직원들이 주거지를 옮긴 경우가 미비했으므로 실업률은 이 지역에서 증가하였고, 같은 시기 프랑스 전국 수치를 비해서도 훨씬 높다. 한편 공장들이 사라진 도시 구역에는 도시 재개발로 인해 새로운 구역들이 들어섰는데, 첨단기술지구, 상업지구, 연구소지구, 문화 공간, 공원, 체육관 등은 도시생활의 다양화에 기여하였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7041660).

** 본 논문은 필자가 2013년 『프랑스사 연구』 제28호에서 발표했던 「파리의 탈

I. 서론

근대 들어 파리는 상업 및 산업의 중심지였고, 오늘날 파리는 정치·교육·재정의 중심지이지만 또한 역사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파리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그들의 도시가 ‘역사적이지만 죽은’ 도시로 남아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 지주들은 그들 소유의 토지 가치를 고려해 파리가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상태에 있기를 원했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더 이상 도시 공간을 오염시키는 ‘산업 활동’을 하는 파리가 아니라 ‘상업 및 금융 활동’을 하는 파리였다. 이러한 유산계급의 염원에 부응하여 파리를 탈산업화시키려는 조치가 한 세기 넘도록 진행되었다.

19세기 중반 나폴레옹 3세의 명령으로 오스만에 의해 주도된 파리 도시 계획으로 인해 파리의 도로들과 건물들은 재건축되고 정비되었다. 한편 일련의 법률에 의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공장들이 파리 외곽에 설립되거나 외곽으로 이전하게 되자, 파리는 19세기 전반의 무질서 및 비위생의 오명을 점차적으로 벗게 되었다. ‘공장들의 파리 탈출’은 20세기까지 지속되어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주로 규모가 큰 공장을 중심으로 파리 산업체의 상당 부분이 교외로 이전하였다. 이러한 산업 이전의 결과로 파리의 탈산업화는 눈에 띄게 진척되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파리는 산업체의 수적 측면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산업 도시였다.¹⁾

산업화: 산업체 이전의 양상과 원인 -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를 중심으로』의 연장선에서 구상되었다. 전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의 탈산업화를 추적하였고, 본고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를 연구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탈산업화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1950-70년대에 집중되어 있고, 이후에 발표된 정책들은 이 시기의 정책에 대한 부분적 수정에 그침으로써, 본고의 연구도 1950-70년대에 다소 집중되어 있다.

- 1) 금속 및 화학 공업 분야의 대규모 공장들이 주로 파리 교외로 이전한 반면, 파리에는 중소 규모의 작업장들이 잔존하여 파리의 사업체 수는 파리 교외의 수치를 앞섰다. INSEE(국립 통계청,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1975년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30년간(“영광의 30년”, Trente Glorieuses), 프랑스는 경제부흥기를 맞이했다. 정부의 경제 부흥 정책은 파리와 파리 교외의 급속한 경제 회복을 이끌었고, 경제 회복 속도는 프랑스의 나머지 지역에 비해 빠른 것이었다. 특히 교외에서는 사업체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파리도 교외에 비해 느리지만 빠른 경제 회복을 보였다. 전쟁 중에 있었던 건물 파괴로 인해 전후 주택 수요는 증가하였고, 건설 및 공공사업 분야는 성장하였다. 한편 1946년부터 나타난 파리와 파리 교외를 포함하는 지역인 파리 지역(Région Parisienne)²⁾에서의 인구 증가는 주택 부족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건설 경기는 활발해졌다. 경기 회복은 1960년대 가속화되었고, 파리와 교외는 이러한 경제적 번영의 혜택을 받았다.³⁾

전후 경기 회복으로 파리와 인근 지역에서 산업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됨과 동시에, 정부는 기업의 지방분산, 즉 산업의 탈중양화 정책을 취하면서 공장들을 파리와 그 인근지역에서 축출하려고 했다. 1955년부터 프랑스 정부는 일련의 법률로 공장들의 지방 이전을 고무시키면서, 파리와 근교에서 공장들이 설립되거나 확장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시도는 19세기부터 정부가 기획해온 파리 지역 재개발의 연장선으로서, 정부는 도시 계획과 도시 재개발을 통

Études Économiques, 이하 INSEE)에 의하면 1960년 파리에서 20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은 6,300개였으며, 파리의 교외에서는 4,394개였다.

- 2) 파리와 파리 교외를 포함하는 용어로, 1928년 푸앵카레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1968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센(Seine) 도(道)와 센에우아즈(Seine-et-Oise) 도(道)가 이에 해당했다.
- 3) 장 바스티에에 따르면, 일드프랑스(Île-de-France)의 이러한 경기 회복을 통계 수치로 살펴보면, 1954년부터 1960년 사이에 2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산업 및 상업시설은 파리에서 약 22% 증가하였고, 근교에서 약 46% 증가했으며, 원교에서도 약 46% 증가하였다. 이 수치들은 프랑스 전국 평균 수치인 14%에 비하면 높은 것이었고, 특히 파리 교외의 산업 발전은 나머지 프랑스 지역의 3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Jean Bastié, *La croissance de la banlieue parisienne*(Paris: PUF, 1964), p. 445.

해 파리와 근교의 탈산업화를 완성하려 했다. 정부가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 기업의 지방분산 정책은 196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1973년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로 인해 그 적용이 다소 둔화되었지만, 이 정책은 여전히 발효 중에 있다. 이러한 탈산업화는 도시 계획 및 도시 미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대량 실업을 야기했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여튼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오늘날 파리 중심가에는 제3차 산업과 기업의 본사들⁴⁾만 남게 되어 파리는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로 이미지가 고착되었다.

공장들이 대도시에서 사라지자 도시의 이미지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세기 전반 산업화 이래 매연으로 가득 찼던 대도시의 이미지는 최근 들어 친환경도시의 이미지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도시마다 산업화의 흔적을 제거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를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들이 시도되었다.⁵⁾ 이러한 탈산업화 및 친환경 도시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파리의 경우 시의회가 19세기부터 도시 미화 및 재개발을 시도했고, 도시에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공장 설립에 제한을 두었다. 하지만 기업들의 원교 또는 지방 이전은 1960년대 이후 법률적 승인 하에 정부기관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서야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해서 프랑스의 수도이자 대표적인 산업도시인 파리와 근교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 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탈산업화를 완성시켜 가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을

4) Françoise Soullignac, *La Banlieue Parisienne*(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3), p. 90.

Soullignac의 연구에 따르면, 1962년 파리 지역 5천여 개의 기업 본사 중 약 4분의 3은 파리 시내에 위치했고, 19%는 파리 근교에 그리고 4%는 원교에 있었다.

5) 세계 최초의 국가차원에서 국토 재개발 정책은 양차 세계대전 사이 소련에서 시작되었고, 그 후 이탈리아와 영국에서 소극적으로 개시되었다. Pierre Merlin, *L'aménagement du territoire*(Paris: PUF., 2002), p. 17.

목적으로 한다. 파리와 교외의 탈산업화를 위해 정부나 시의회가 취한 정책이나 일련의 관련 법률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법률이나 정책으로 인해 자극된 산업체들의 지방 이전 양상 및 규모를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지역별로 산업 이전 양상을 분석해보고, 산업 이전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도 알아볼 것이다. 또한 탈산업화 이후 지역 경제가 받은 타격을 무마시키기 위해 지역 행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찾아보고, 사업체가 이전한 후 남은 공장부지 및 건물 이용에 시의회와 개입 여부와 구체적인 역할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도시 계획 관련법 및 기획안

19세기 들어 프랑스 도시 행정의 주요 목표는 각 구역에서 최소한의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고, 산업화의 결과로 등장한 ‘위험한 계급’⁶⁾을 제어하며, 비위생적인 주거지의 재건축과 비좁은 도로의 재정비를 통해 도시 전체에 활기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을 때 프랑스에는 도시의 과도한 팽창을 제한하고 감독하기 위해 마련된 1919년 및 1924년 도시 계획 관련법 그리고 파리 지역의 전반적인 도시 계획인 ‘프로 계획(Plan Prost, 1934)’에 의한 도시 재개발, 도시 미화 및 도시 확장 계획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사문서로 남아 있었다. 잇단 도시 계획 실패를 모면하기 위해 정부와 일부 정치가들은 대전 직후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도시 개발 계획들을 시도했다. 하지만 도시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부 역사학자들이 지적하듯이 프랑스에서 도시 계획의 역사는 사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공적 이해관계의 승리라고 볼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들은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공포된 ‘인권선언’에 명시된 소유권을 핑계로 소유지에 자의적 건축물을 세

6) 루이 슈발리에(Louis Chevalier)의 *Classes laborieuses et classes dangereuses à Paris pendant la première moitié du XIX^e siècle*(Paris: Plon, 1958)에서 빌려온 표현이다.

우고 개간하였다.)⁷⁾ 이에 대항하여 프랑스 정부는 일련의 법령들로 ‘공공 목적을 위한 징수 및 선매권’을 도입하였고, 1960년대 이러한 법령들을 완성시켰다.⁸⁾

제2차 세계대전 직전 프랑스 정부는 ‘국가 재건 및 도시 계획부(Ministère de la Reconstruction et l’Urbanisme, 1944)’를 설립해 전쟁 중 파괴된 건물 재건축과 도시 개발을 담당하게 했고, ‘파리 지역 재개발국(Service de l’aménagement de la région parisienne)’를 신설하여 산하 기구인 ‘파리 지역 재개발 위원회(Comité d’Aménagement de la Région Parisienne)’에게 파리 지역 도시 계획을 담당하게 했다.⁹⁾ 이후 적어도 5년간 파리 지역에서 도시 계획 및 도시 재개발의 문제는 전후 재건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었지만, 파리 지역 도시 계획 문제가 완전히 도외시되지는 않았다. 1948년부터 ‘파리 지역 재개발 위원회’는 수도권에서 산업 지구 확장에 반대하는 의향을 소극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했지만, 1950년대 초 파리 시의회는 탈중양화 정책에 전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았다.

1950년은 파리 지역 도시 재개발 정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8월 8일 법은 지역 재개발 정책을 개시하였고, 도시 시설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토 개발 국가 기금(Fonds Nationaux d’Aménagement du Territoire)’을 창설하였는데, 이것은 국가가 지역 개발에 간여함을 의미하였다. 1951년 5월 24일 투자비용 관련법은 일부 도시 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도시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토지 소유자들과의 알력 문제는 1953년 8월 6일 법에 의해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법은 결정적으로 시의회에게

7) Pierre Merlin, *Les banlieues des villes françaises*(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8), p. 40.

8) Pierre Choubersky, Serge Varague, “la politique foncière en région parisienne”, *Espaces et sociétés, Revue critique internationale de l’aménagement, de l’architecture et de l’urbanisation*, no. 13-14(octobre 1974-janvier 1975), pp. 78-80.

9)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Avis et rapports du Conseil économique*, no. 8(6 mai 1959), p. 431.

‘공공의 목적을 위해 토지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였다. 1953년 법은 도시 계획의 필요성에서보다는 공공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의 필요성에 의해서 채택되었지만, 어쨌든 “각 코뮌의 행정당국에게 있어 ‘도시 재개발용 토지 징수’를 위한 효과적인 무기”¹⁰⁾였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연장선에서 1955년 5월 ‘파리 지역 건설 및 도시 계획 위원회(Commissariat à la Construction et à l’Urbanisme pour la Région Parisienne)’가 신설되었다. 이 위원회는 건축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대출금을 마련해주고, 건축 허가증을 빠른 기일 내에 언도록 도와주며, 건축에 필요한 도시의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전반적으로 위원회의 목적은 도시 계획보다 전쟁으로 파괴된 주택 건설에 있었고, 이후 채택된 1958-59년 그리고 1961-62년의 법령들도 전후 국토 재건설과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주택 건설 정책은 도시의 팽창을 가져왔고, 이는 결국 도시 계획 문제를 부각시켰다.

1956년부터 파리 지역 도시 계획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 지역 개발 및 조직 계획(Plan d’aménagement et d’organisation de la région parisienne, 이하 PADOG)의 구상을 위한 시도들이 시작되었다. 우선 1956년 1월 12일 법령은 새로운 도시 계획을 구상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하였고, 1958년 12월 31일 법은 PADOG의 목적과 구상 및 승인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후 선행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마침내 1960년 8월 6일 정부는 PADOG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이 계획은 당시 파리 지역의 과도한 성장을 차단하려던 분위기에 호응하는 것이었고, ‘파리 재개발, 근교 재정비 그리고 파리 지역 전반의 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했다. PADOG의 주요 조항은 토지 사용 규정 및 건축 높이에 관한 규정에 국한되어 있어 일부

10) Jean Bastié, *La croissance de la banlieue parisienne*, p. 369. 게다가 1955년 1월 4일 법령은 부동산 등기에 현대적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었는데,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의 신원 확인을 철저하게 하여 부동산 소유자에게 엄격한 법규 준수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다.

에서는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¹¹⁾ 토지 소유자들의 비호응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조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1958년 제5공화국의 설립과 더불어 정치체제 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적 현실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강해졌다. 1963년 ‘국토 및 지역 개발 기획단(Délégation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ction régionale, 이하 DATAR)’이 신설되어 총리의 직속 관할 부서가 됨으로써, 정부는 도시 계획과 도시 재개발에 대한 의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보였다.¹²⁾ 이러한 의지의 연장선에서 1965년 ‘파리 지역 재개발 및 도시 계획 연구소(Institut d'aménagement et d'urbanisme de la Région parisienne, 이하 IAURP)’에서 『파리 지역 재개발 및 도시 계획도』(*Schéma directeur d'aménagement et d'urbanisme de la région parisienne*, 이하 SDAURP)를 발행하였다.¹³⁾ 이 도시 계획도는 드골(De Gaulle)의 측근인 폴 드루브리예(Paul Delouvrier)를 중심으로 파리 지역의 향후 30여 년간 전망을 고려하여 기획되었다. 계획의 목적은 파리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주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자연 자원인 숲이나 강을 보존하며,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도시화와 단절하는 것이었다. DATAR의 지도부는 “SDAURP가 파리 지역의 과도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였지만, 정부는 DATAR에게 프랑스의 다른 주요 도시들에도 유사한 도시 계획을 구상할 것을 요구했

11) 장 바스티에에 의하면 PADOG에 대한 비판 의견은 건축학계에서 그리고 상원의 재정위원회에서 주로 제시되었다. *Ibid.*, pp. 376-377.

12) DATAR는 1963년 창설되어 2014년 해체되었다. 참고로 1963년 시작된 정부의 탈중앙화 정책은 우선 공공기관과 산업 분야를 주요 대상으로 했다. 이 정책의 결과 국립고등항공학교는 툴루즈(Toulouse)로, 군사정보통신국은 렌느(Rennes)로, 항공우주국은 툴루즈와 보르도(Bordeaux)로 이전하였다. 탈중앙화의 제2단계는 1982년 법에 의해 시작되었고, 국가와 지방의 상호 모순되는 에너지 정책을 통해 지역 에너지 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에너지의 탈중앙화를 시도했다.

13) 본고에서는 IAURP가 1975년 발행한 『파리 지역 재개발 및 도시 계획도』를 참조하였다. 1975년 발행 본은 1960년대 심화된 도시 성장, 교외 문제 그리고 파리의 과도한 성장을 해결하기 위해 발행되었다.

다.”¹⁴⁾ 전반적으로 SDAURP는 1965년 파리 지역 도시 계획에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1969년과 1976년 수정되었지만 주요 핵심 사항은 유지되었다.¹⁵⁾

정부는 기업의 지방분산 정책을 통해 기존의 산업체들을 이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파리 지역, 특히 산업 활동이 가장 활발한 코뮌에 건축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1955년 1월 5일 법령으로 도입된 ‘승인’ 조치로 인해, 파리 지역에서 공장 건물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사들이 정부의 사전 건축 허가를 승인 받아야 했다. 사업체용 건물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은 ‘탈중앙화 위원회(Comité de décentralisation)’가 ‘시설개발부(Ministre de l'Équipement)’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내려졌다. 초기에는 공장이든 물류창고든 상관없이 50명 이하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지면이 500m² 이하인 조건에서만 건축 허가가 승인되었지만, 이후 사무실에 대해서는 2,000m², 공장용은 3,000m² 그리고 창고용은 5,000m²으로 변경되었다.¹⁶⁾ 결국 1955년 1월 법령도 수도권 일부 지역의 과도한 팽창과 다른 지역의 미개발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1960년 3월 2일 제정된 법은 ‘사업체용 건축에 대한 부과세’를 명시하고 있다. 이 세무 조치는 파리 지역에서의 사업체 창설을 억제하는 동시에, 이 지역에서 계속 생산하기를 원하는 공장들이 이전할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세액은 파리 지역의 구역별로 다양해서, 파리와 현재의 오드센(Hauts-de-Seine)을 포함하는 ‘중심 구역(zone centrale)’은 산업 지구인 현재의 센생드니(Seine-Saint-Denis)가 주로 포함되는 ‘외부 구역(zone extérieure)’에 비해 부가세가 2배

14) Pierre Merlin, *Les banlieues des villes françaises*, p. 41.

15) SDAURP는 1976년 *Schéma directeur d'aménagement et d'urbanisme de la région Île-de-France*(SDAURIF)로 변경되었고,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수정되어 왔으며, 가장 최근의 것은 2030년까지의 도시 계획을 목표로 두고 있다.

16)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Décentralisation industrielle*(Paris: Imprimerie des Journaux officiels, 1956), pp. 5-7.

나 높았다.¹⁷⁾ 이 부가세는 변동을 거듭하다가 1984년 12월 3일 법에 의해 산업 지구의 부가세가 폐지되었다.¹⁸⁾ ‘탈중앙화 보조기금(Le Fonds d’aide à la décentralisation, 이하 FAD)’은 1960년 8월 2일 법과 더불어 창설되었다. ‘사업체용 건축에 대한 부가세’ 수익의 절반은 시의회의 활동을 위해 쓰였지만, 나머지 절반은 FAD가 산업체들이 파리 지역 밖에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FAD에 지불되었다. FAD 활동은 1987년 폐지될 때까지 공공 기관들의 파리 지역 외부로의 이전을 담당했던 ‘행정기구 탈중앙화 기금(Fonds de décentralisation administrative)’의 활동과 제휴되었다.

결과적으로 1950-1970년대 정부가 법령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부추킨 것은 한편으로 파리 공장들이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이전하도록 파리 지역에서의 사업 확장을 막은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 파리 산업체들이 지방에 정착하도록 경제적 혜택을 부여한 것이었다. 사업체 설립 억제책의 경우, 1955년 1월 법령은 사업장 팽창을 위한 승인을 받도록 했고, 1960년 8월 법은 확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였다. 반면에 기업 이전을 위한 고무책의 경우, 1960년 8월 법은 사업장 철거의 경우 평방미터당 장려금을 수여하였고, 세금이나 벌금 면제 그리고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¹⁹⁾ 등 서비스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은 비판에 직면했는데, 앞서본 DATAR 지도부의 파리 지역의 과도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이외에, 피상적으로 접근하여 혼동과 모순을 이끌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²⁰⁾ 산업의 탈중앙화 정책에 있어 1960년대

17) Jean Girardon, *Politique d'aménagement du territoire*(Paris: Ellipses, 2010), p. 60.

18) Pierre Merlin, *L'aménagement du territoire*, p. 163.

19) 이러한 기반시설로는 도로, 철로, 전화망 같은 인프라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산업 파크, 과학 파크, 기술 파크 같은 산업 지구의 창설로 인해 공동시설 이용이 더 용이해져서 공장을 신설하는 것이 편리해졌다.

20) Jean Lokline, “La politique urbaine et stratégie de classe”, *Espaces et sociétés, Revue critique internationale de l'aménagement de l'architecture et de l'urbanisation*,

부터 이루어졌던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1973년 경제 위기 이후에 위축되었다. 1980년대 들어 탈산업화의 제2단계로서 1982-83년 탈중양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이전 시기보다 “간접적이고, 산만하며, 탈중양화된”²¹⁾ 방법으로 개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III. 기업 이전 양상

산업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 전체의 이전보다는 부분적 이전이 많았다.²²⁾ 공장을 증축하기에 파리와 근교의 부지는 비좁고 값비싼 것이었으므로, 기업 확장을 위해서 공장의 부분적인 이전을 감행한 것이다. 일부 기업은 지방으로의 이전보다 파리 원교로의 이전을 선택했는데, 원교로의 이전이 그들의 직원들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직원들 상당수가 교외에 살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공장 이전으로 인해 직원들이 주거지를 이전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공장을 따라 주거지를 옮긴 직원 수는 많지 않았다. 예를 들면, 과자 제조회사 방담(Vandamme)²³⁾은 1943년 파리 근교 슈아지(Choisy)로 이전한 후 1958년 합병되면서 엔(Aisne)도(道)로 이전했는데, 이 때 회사를 따라 주거지를 옮긴 직원은 10%에 그쳤다. 본사가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트레일러 제조업체인 프루하우프 트레일러(carrosseries Fruehauf-Trailer)의 경우, 비리샤티용(Viry-Chatillon)에서 부르고뉴 지역의 오세르(Auxerre)로 이전할 때

no. 1(novembre 1970), p. 80.

21) Bernard Ganne, “Politiques publiques industrielles et systèmes d’aide aux entreprises en France depuis 25 ans”, *Espaces et sociétés, Revue critique internationale de l’aménagement de l’architecture et de l’urbanisation*, no. 88-89(1997), p. 265.

22) 파리 남쪽 교외의 경우, 장 바스티에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의 전체적인 이전은 부분적인 이전의 절반에 불과했다. Jean Bastié, *La croissance de la banlieue parisienne*, pp. 457-460.

23) 1929년 파리 15구에 설립되었고, 여러 차례 다양한 회사들과의 합병 이후 1980년 다논(Danone)에 합병되었다.

15%의 직원만이 회사를 따라 거주지를 옮겼다.²⁴⁾ 건설부(Ministère de la Construction)의 통계 자료²⁵⁾에 의하면, 1955년부터 1961년까지 산업체의 지방 이전이 직원들의 동반 이전을 야기한 것은 7% 미만에 그쳐 약 7,500명이 직장을 따라 이전한 반면, 같은 기간에 기업의 지방 이전으로 인해 지방에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114,500개이다. 결국 기업의 지방 분산이 직원들의 거주지 이전을 동반하지 못해서, 파리 지역에는 일자리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정부나 시의회의 개입으로 산업 이전을 시도한 사례는 파리 인근 지역에서 다수 관찰된다. 팡탱(Pantin) 소재 금속제조회사인 마르샬(Marchal)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지방으로 이전을 강요당했고, 공장이 블루아(Blois)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비숙련노동력 고용과 공장 구조 조정을 통해 25%의 이익을 얻었다.²⁶⁾ 팡탱의 또 다른 금속제조회사인 모토 베칸(Moto-Bécane)은 공장신축을 위한 부지가 필요했으나, 시의회의 공장 설립 억제책에 의한 고비용 때문에 노르(Nord) 지역의 생캥탱(Saint-Quentin)으로 이전하였다. 이전 과정에서 부속 공장들은 이전에서 제외되었고, 모터 생산과 전기 부속기기 생산공정의 부분적 이전만 이루어졌다. 콜롱브(Colombes)의 계량기 제조회사 콩티낭탈(Continental)의 경우도 정부 정책으로 인해 공장 확장에 고비용이 예상되자, 일부 공장은 1971년 푸아티에(Poitiers)로 이전하여 전기 계량기 생산을 전담하게 하였고, 콜롱브 공장은 가스계량기 생산에 집중하게 하였다.

사실 정부의 탈중앙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1950년대부터 산업화가 일찍 진행된 구역에서 사업장 설립이 눈에 띄게 줄어

24) Jean Bastié, *La croissance de la banlieue parisienne*, p. 460.

25) Ministère de la Construction, *Décentralisation et localisation industrielle*(1955-1961).

26) IAURIF, *La désindustrialisation de l'agglomération parisienne*(Paris, 1979), p. 16.

들었고, 파리의 북쪽과 서쪽 근교에서 탈산업화의 신호가 나타났다. 1956년 대규모 공장의 수는 북쪽 근교의 오베르빌리에(Aubervilliers), 팡탱, 생드니(Saint-Denis) 그리고 서쪽 근교의 푸토(Puteaux), 클리쉬(Clichy), 쉬렌(Suresnes)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생투앙(Saint-Ouen), 불로뉴(Boulogne) 그리고 이시레몰리노(Issy-les-Moulineaux)에서는 1947년에 비해 정체되었다. 1947년부터 1956년까지 가장 먼저 산업화되었던 이 코뮌들에서는 적어도 백여 개의 공장들이 사라졌다.²⁷⁾ 반면 파리 외곽에 위치한 1930년대 와서야 산업화되었던 지역에서는 공장 수가 증가하였다.²⁸⁾ 즉 파리 지역에서의 산업 이전의 경향은 파리와 파리에 인접한 코뮌들의 공장들이 파리에서 좀 더 떨어진 코뮌들 또는 파리 원교인 당시 센에우아즈(Seine-et-Oise) 도로 이전하는 양상을 띠었다.

이어서 정부의 탈중앙화 정책으로 인한 탈산업화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것은 1954년부터 1978년까지 약 3,500건이며, 이로 인해 지방에서는 약 500,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²⁹⁾ 산업별로 보면, 금속 및 기계 산업이 50%로 가장 많이 이전되었고, 화학, 직물 및 의류 산업이 각각 약 12%를 차지하였다. 산업 이전을 가장 많이 한 시기는 1960년대 초반이며 1961년에 289건으로 가장 많았다. 1968년부터 이전의 수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1973년부터는 매년 50여개의 사업체만이 정부의 탈중앙화 정책 대열에 합류하였다. 지방 이전을 감수한 사업체는 주로 대규모의 공장들이었고, 이들 대규모 공장 중 4%가 지방에

27) Claudine Fontanon, “l’industrialisation de la banlieue parisienne(1860-1960)”, Annie Fourcaut, *Un siècle de Banlieue Parisienne, 1859-1964*(Paris: L’Harmattan, 1988), p. 70.

28) *Ibid.*, 라쿠르네브(La Courneuve), 르부르제(Le Bourget), 콜롱브(Colombes), 낭테르(Nanterre), 젠빌리에(Gennevilliers)가 이에 해당한다. 이 코뮌들에서는 사업체 수가 같은 기간에 80개에서 250개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철도의 발달과 운하와 같은 수로의 발달로 인해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29) M. Gully, “Vie et transformation de l’industrie en Île-de-France 1954-1978, emplois et localisations”, *Cahiers de l’IAURIF*, no. 63(1991)을 Françoise Soullignanc, *La Banlieue Parisienne*, p. 91에서 재인용.

새로 창출된 일자리의 절반가량을 제공했다. 이전한 기업들 중 20명 이하의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수는 약 700여개에 그쳤다. 구역별로 볼 때 파리 근교에서의 이전이 56%를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파리와 파리 원교인 센에우아즈 지역에서 차지하였다.

정부의 지원에 의한 산업 이전의 속도가 줄어들 시기에 1973년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공장 폐업 또는 저비용을 위한 공장 이전은 불가피했다. 파리 북동쪽 교외의 생생드니 지역 산업의 이미지는 대규모 산업체의 집중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대규모 공장들은 1960년대 말까지 생생드니에서 산업 활동을 유지하였다. 대표적인 공장으로는 생투앙의 시트로앵(Citroën, 자동차)과 윈더(Wonder, 건전지 제조),³⁰⁾ 생드니의 사비엠 르노(Saviem-Renault, 트럭 제조), 라쿠르네브(La Courneuve)의 라토(Rateau, 기계 제조)와 밥콕 아틀란틱(Babcock-Atlantique, 용접·주물업) 등이 있었다. 하지만 1970~80년대 들어 공장 폐업과 기업의 구조 조정 그리고 대량 해고 등의 탈산업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생드니의 공작기계 제조업체 카즈네브(Cazeneuve)는 직원 420명을 해고했고, 전화기회사 푸예(Pouyet)는 322명을 해고한 후 미국 전화기회사인 아이티티(ITT)에 팔렸으며, 전기용접회사 랑그팽(Languépin) 역시 파산선고를 하여 350명이 해고되었다.³¹⁾ 생드니의 전기 및 전자회사인 쥘몽 슈네데르(Jeumont-Schneider)는 1986년 알스툼(Alstom)에 합병되었고, 생투앙의 전자회사 톰슨 휴스톤(Thomson-Houston)은 1983년 SIMIV로 다시 재구성되었으며, 1984년 노벨 보젤(Nobel-Bozel)은 미국계 회사로 흡수되었다.³²⁾

30) 시트로앵은 1976년 자동차회사 푸조와 합병되었고, 윈더는 1988년 미국 회사 랄스톤(건전지 에너지저장 회사)에 팔렸다.

31) Michel Michel, "Un paysage industriel en mouvement", Jacques Girault, *Seine-Saint-Denis: chantiers et mémoire*(Paris: Autrement, 1998), pp. 212-213.

32) 톰슨 휴스톤은 1883년 설립된 미국계 전기회사로 1892년 토마스 에디슨의 전기회사와 합병되었다. 톰슨 휴스톤의 프랑스 지사는 1893년 설립되었으며, 영국에는 1896년에 자회사가 설립되었다.

지리학 연구소(Institut de Géographie)의 『센생드니와 발두아즈의 지도』(Atlas économique et sociale de la Seine-Saint-Denis et du Val-d'Oise)에 따르면, 1975년 두 도(道)에 5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기업의 수가 50개 이상 존재했다. 하지만 20년 후에 이러한 기업의 수는 10개 이하로 감소했다. 오늘날 센생드니 도에는 하나의 초대규모 산업체만이 존재하는데, 시트로앵 페에스아(Citroën-PSA)가 오네수부아(Aulnay-sous-Bois)에 5,500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2,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로맹빌(Romainville)의 화학공업회사 루셀 호에쉬트(Roussel-Hoescht), 1,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기업으로는 라쿠르네브의 알스툼-엘렉트로메카닉(Alsthom-Electromécanique) 그리고 생투앙의 알스툼-트랑스포르(Alsthom-Transport)가 대규모 산업체들이다.

파리의 남쪽 교외는 북쪽 교외보다 산업화가 덜 진행되었지만, 이브리(Ivry), 비트리(Vitry), 쥐비지(Juvisy) 등은 남쪽 교외에서 가장 산업화된 도시들이었다. 이 지역에는 전간기 파리에서 이전되었던 공장들이 다수 존재했는데, 이 공장들은 산업의 탈중앙화 정책으로 다시 지방으로의 이전을 시도하였다. 기업 전체 이전의 경우, 이브리 전기회사인 시이엠(CEM)의 르 아브르(Le Havre)로의 이전과 쥐비지의 오토센 주물소(Fonderies de la Haute-Seine)의 에로(Hérault) 지방으로의 이전을 예로 들 수 있다. 부분적 이전의 경우, 롤 베어링 회사 에스케이에프(SKF)의 앙드르에루아르(Indre-et-Loire)로의 이전 그리고 슈야지의 전구회사인 수정 및 유리 회사(Cristalleries et Verreries Réunies)의 센마리팀(Seine-Maritime)으로의 이전을 들 수 있다.³³⁾

끝으로,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이미 탈산업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던 파리에서도 산업 이전이 이루어졌다. 우선 대규모 공장으로서 15구 자벨(Javel) 가(街)의 시트로앵 자동차 공장은 앞서 언급했던 생투앙 공장과 같이 1975년 운영을 중지했고, 이후 구조 조정으로 공장의

33) Jean Bastié, *La croissance de la banlieue parisienne*, pp. 457-459.

지방 이전이 결정되었다. 결국 생산 공장은 1975년 이전했고, 그룹 본사만이 1982년까지 유지되다가 1986년 앙드레 시트로앵 공원이 되었다. 중소 규모 공장의 경우, 20구의 지퍼 공장 페르므튀르 드 룩스(Fermetures de Luxe)는 1955년에 슈아지로 이전했다가, 이후 외르(Eure)로 부분적 이전을 하였다. 파리의 13구와 15구의 사업장들은 주로 이브리와 비트리로 이전했는데, 1952년부터 1962년까지 파리에서 이브리로 이전한 사업체의 수는 20여개이며, 비트리로 이전한 사업체 수는 15개가량이다.³⁴⁾ 대표적인 것으로 15구의 텔레비전 제조업체 슈네데르 텔레비지옹(Shneider-Télévision)은 1952년 이브리로 이전한 후 르 망(Le Mans)으로 다시 이전하였고, 무기와 모터를 제조하던 S.O.F.A.M.는 1952년 파리에서 비트리로 이전하였다.

IV. 기업 이전의 결과

1. 통계상의 변화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공장 폐쇄는 파리 지역의 산업 정원 감소를 야기하였다. 파리 지역 재개발 및 도시 계획 연구소(IAURP)에 따르면, 경제 부흥기에 해당하는 1954년부터 1962년까지 산업 고용 정원은 1,372,000명에서 1,453,000명으로 81,000명 증가하였다.³⁵⁾ 하지만 정부의 산업 이전 정책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1962년부터 1968년까지 73,000명 감소했고,³⁶⁾ 1968년에서 1975년까지 23,000명 감소해서,

34) *Ibid.*, pp. 452-454.

35) IAURIF, *La désindustrialisation de l'agglomération parisienne*, p. 6. INSEE의 『산업 및 상업 색인표』(*Fichier des Etablissements industriels et commerciaux*)의 수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각각 약 1,323,000과 1,643,000으로 조사되었다. 파리 지역의 산업 정원은 프랑스 전체의 약 25%를 차지했다.

36) 1962년 INSEE는 19세기 중반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인 일드프랑스 지역에서 산업 정원이 감소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당시 경제적 번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업 정원이 감소한 이유를 정부가 주도한 산업의 탈중앙화의 결과라고 간주했다.

13년간 총 96,000명이 감소했다. 또한 1968년부터 1975년 사이에는 서로 반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1969년부터 1970년까지 2년간 경기 호황으로 77,000명이 증가한 반면, 1972년부터 산업 정원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반면 파리 지역의 실업률은 1962년부터 197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962년 50,700명에서 1968년 125,792명으로, 그리고 1975년에 202,245명으로 증가하였다.³⁷⁾ 또한 이 지역의 실업률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아, 프랑스 전국 실업률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였다.

산업 이전의 결과는 파리 지역 내에서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산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들이 주거지 위주의 지역들보다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산업화가 가장 많이 진척되었던 센생드니가 이에 해당하였다. 센생드니에서는 중소 규모의 작업장과 대규모 공장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산업 정원 수치도 대폭 감소했다. 1962년부터 1975년까지 센생드니에서는 산업 정원이 약 15-20% 감소했고, 특히 기계 및 전자기기 제조분야에서는 1982년부터 1990년까지 38% 가량 감소했다. 한편 파리에서는 1962년부터 1975년까지 산업 고용률이 약 30% 감소하였는데, 1962년 산업 고용 인원이 750,000명이었다가, 1975년 500,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정원 감소가 계속되어 1990년에는 약 250,000명에 이른다. 파리 서쪽 교외이자 부유한 지구인 오드센(Hauts-de-Seine)에서는 고용률이 10% 가량 감소하였다.³⁸⁾ 반면에 이블린(Yvelines), 에손(Essonne), 발두아즈(Val d'Oise) 같은 원교(Grande Couronne)에 위치한 도(道)들과 근교의 외곽에 위치한 도시들에서는 고용률이 증가하였다. 결국 파리 지역 내에서 1960년대부터 시작된 파리와 근교의 탈산업화는 원교의 산업화로 귀결되었다.

파리 시내에서도 구(區)별로 탈중양화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를

37) INSEE, *L'économie régionale en 1980: population, emploi et comptes*(Paris: INSEE, 1978), p. 30.

38) IAURIF, *La désindustrialisation de l'agglomération parisienne*, p. 6.

들면 파리 산업체 고용 정원의 약 10%를 차지했던 15구에서는 1962년부터 1974년까지 184개의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16,504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³⁹⁾ 이는 파리 산업체의 약 3분의 1과, 파리 노동자들의 약 4분의 1에 해당했다. 이러한 변화는 대규모 공장의 폐쇄로 인한 것인데, 15구의 주요 기업이었던 시트로앵의 합병 및 이전으로 이곳에서는 약 2,500명을 고용하는 그룹 본사만 남게 됨으로써 2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한편 13구에서도 19,904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110개의 공장들이 1962년과 1974년 사이에 문을 닫았다.⁴⁰⁾ 분야별로 살펴보면, 탈산업화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13구의 산업 분야는 의류(17,263개 일자리 감소, 약 25.3%), 금속(8,718개 감소, 약 10.5%), 자동차(8,032개 감소, 약 5.3%), 목재(7,075개 감소, 약 25.9%), 그리고 기타 산업(10,812, 14.4%)이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의 고용률 감소는 뒤이어 일어나는 현상에 비하면 미비한 것이었다. 1973년 중동에서 발생한 석유파동은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었고, 프랑스에서도 예외일 수 없었다. 일드프랑스에서는 1974년부터 1982년까지 16.8% 감소했고, 1982년부터 1988년까지 9% 그리고 1989년부터 1997년까지 32.8% 감소했다.⁴¹⁾ 이 수치는 같은 시기 프랑스 전체에서의 고용률 감소 폭, 즉 12%, 13.2% 그리고 11.2%에 비하면 높은 것이었고, 탈산업화의 영향이 이 시기에도 프랑스보다 파리 지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산업 분야별로 보면 1989년부터 2000년까지 가장 많은 고용률 감소를 보인 분야는 화학 공업으로 67% 감소했고, 금속 공업 59.4%, 직물 산업 58.3%, 목재 공업 57.2% 각각 감소했다.⁴²⁾ 한편 의학 및 향수 분야는 30%, 기계 장비 분야는 18.7% 그리고 전기

39) *Ibid.*, p. 7.

40) *Ibid.*, p. 8.

41) Nicole Cadenel, Christian Calzada, "La géographie de l'emploi industriel en Île-de-France", *Réalités Industrielles, Annales de Mines*, (février 2000), pp. 23-28.

42) INSEE, *L'emploi départemental et sectoriel de 1989 à 2000*.

장비 분야는 0% 감소에 그쳤다. 파리 지역의 큰 감소폭에 비하면 프랑스의 감소폭은 미비했는데, 화학 공업 6.6%, 금속 공업 19.8%, 직물 산업 36.3%, 목재 산업 17.6%, 의학 및 향수 분야 3.3%, 기계 장비 3.3% 그리고 전기 장비 4.4%에 그쳤다. 반면 실업률은 1975년과 1990년 사이 이 지역에서 4.3%에서 8.6%로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⁴³⁾

2. 도시 재편성

『파리 지역 재개발 및 도시 계획도』(SDAURP)가 착수한 주요 사업은 파리에서 공장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었고, 1966년 시의회의 결정은 “3차 산업의 불가피한 확대를 자극하면서, 2차 산업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이었다.”⁴⁴⁾ 이로 인해 파리에서 수공업 및 산업 지구는 시의 변두리에만 허용되었다. 장차 2차 산업 지구는 북동부의 북역(Gare du Nord), 남동부의 오스테르리츠역(Gare d'Austerliz) 그리고 남서부의 몽파르나스역(Gare Montparnasse) 바깥에만 설립될 수 있었다. 한편 3차 산업 활동은 새로 설립된 라데팡스(la Défense) 부근에 주로 정착하였고, 잇달아 자극된 대중교통의 발달로 지하철 1호선과 국철 노선 A의 연결역이 됨으로써 라데팡스의 상업화는 심화되었다. SDAURP의 연장선에서 발족된 1974년 프로젝트는 파리를 국제 금융의 도시로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파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리볼리 가(街)(rue de Rivoli)나 포부르 푸아소니에르 가(rue du Faubourg Poissonnière)는 은행과 보험회사의 중심지가 되었다.

공장들이 이전한 후 남게 된 파리의 공장 부지는 정부나 지자체 주도로 이루어진 도시 재개발의 대상이 되었다.⁴⁵⁾ 예를 들면 1968년 승

43) INSEE, *Recensements de population*, 1990.

44) Pierre Lavedan, *Nouvelle histoire de Paris*(Paris: Hachette, 1975), p. 531.

45) 공장의 지방 이전으로 남겨진 산업 부지는 일부 다른 산업 부지 또는 상업 지구로 변경되었지만, 일부는 새로운 시설들로 대체되었다. 정부 주도로 재구성

인된 벨빌 지구(Belleville, 파리 20구의 구역) 및 이탈리아 지구(Italie, 파리 13구의 구역) 관련 도시 계획을 들 수 있겠다. 이 계획으로 벨빌의 소규모 작업장들은 모두 사라졌고, 주거지와 3차 산업 관련 지구로 대체되었다. 특히 이탈리아 지구의 계획은 더 광범위하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었다. 파리 13구의 유명한 자동차 생산 공장으로 1965년 시트로앵에 의해 합병된 팡아르(Panhard) 공장 부지와 주변의 낡고 지저분한 건물들이 사라지고, 파리 변두리에서나 볼 수 있는 30층 높이의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다. 하지만 이 도시 계획은 작업장이나 공장 이전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공사 후 거의 두 배나 오른 집값으로 서민층은 파리 교외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했다.⁴⁶⁾

근교의 코뮌들도 산업 활동 지구를 재정비하고, 버려진 건물 개량 및 황폐화된 공단 재개발 운동을 추진했다. 몽트레이수부아(Montreuil-sous-Bois)는 이러한 목적으로 첨단 산업 활동 센터(CAP, Centre d'activité de pointe)를 설립했다. 생드니의 경우, ‘플랜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라플랜생드니(la Plaine Saint-Denis)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재개발에 들어갔는데, 이 계획은 경제 부흥, 고용 창출, 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파리와 인접하여 일찍이 파리의 산업화에 영향을 받았던 생투앙은 다른 코뮌보다 이른 시기에 탈산업화를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한 영향도 컸다. 센 도의회를 비롯한 지자체 의결기구들은 1960

된 이러한 시설들에는 파리의 시트로앵 공장 부지처럼 공원으로 변경되거나, 생드니의 공단 지대처럼 대규모 스포츠 경기장으로 변경되었다. 이외에 기타 체육 시설과 수영장을 비롯한 운동 시설, 공연장이나 문화 공간 같은 문화 시설, 보건·위생 시설 또는 교육 시설 및 대학 기구들이 들어섰다.

- 46) Denis Duclos, “Rénovation urbaine et capital monopoliste à Paris”, *Espaces et sociétés, Revue critique internationale de l'aménagement de l'architecture et de l'urbanisation*, no. 1(octobre 1974-janvier 1975), pp. 142-143. 이 논문은 탈산업화와 도시 재개발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본 것은 토지 소유자들이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재개발로 인해 주거지에서 축출당한 노동자들은 파리 변두리나 교외로 이전하였고, 재건축된 건물들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50%이상 오른 임대료가 요구되었다고 내세웠다. 한편 13구와 15구의 도시계획으로 인해 사라진 공장들은 40-50%에 달한다.

년대부터 지역 경제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지방분권화의 결과로 인해 강화되었다. 생투앙 시의회는 공공문서 및 국가 발행 문서 취급으로 유명한 쉐 인쇄소(Imprimerie Chaix)가 폐쇄된 후 공장부지 이용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행정권에 의한 경제 연구에 선두로 나섰다. 에피내빌타너즈(Épinay-Villetaneuse)의 경우, 이 도시의 노벨(Nobel) 화학공장은 자동차 전용도로 계획으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이 도로 계획이 무산되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후, 지역 간의 경제 연구 관련 토의를 거친 후 상업 센터로 전환되었다.

한편 중소기업 내부에서도 구조 조정이나 경영 전략 변경이 이루어졌다. 중소기업은 세계화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 연구와 쇄신 기능에 더 집중되었다. 포드식 생산 방식을 따르며 연구소와 분리되었던 생산 기능은 점차 연구 활동과 같은 장소 또는 인근의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대규모 산업체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고, 이 목적을 위해 중소기업과 연계하게 되었다. 센생드니에서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이 대기업과 연계되어 있는데,⁴⁷⁾ 대표적인 기업으로 프랑스전력공사(EDF), 프랑스가스공사(GDF), 미용용품 회사 로레알(L'Oréal), 제약회사인 루셀(Roussel-UCLAF)⁴⁸⁾ 등이

47) 1960년대 제3차 산업의 성장과 1970년대 경제 위기로 제2차 산업의 활동이 둔화된 후,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것과 부분적으로 지방 이전을 감행하는 것이 기업 재조정 분위기에 잘 적응하는 방법이라고 현대 유럽 연구자들은 주장한다. 정부 또한 이러한 분위기에 적응하여, 대규모 산업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기술 이전에 보조하는 정책들을 발전시켜야 하며, 이전과는 달리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회사의 환경 개선에 보조금을 지원할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산업 활동이 지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자치단체가 지역의 활동을 위해 보조금 내지 고무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지자체의 역할은 점차 국가의 역할을 능가해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연구 경향이다. André Fischer, "Stratégies spatiale - stratégies de développement ; à propos de l'essor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Espaces et sociétés, Revue critique internationale de l'aménagement de l'architecture et de l'urbanisation*, no. 66-67(1992), pp. 170-171.

48) Michel Michel, "Un paysage industriel en mouvement", pp. 219-220.

있다. 산업 관련 연구는 주로 대학과 관련 연구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셴생드니의 경우 생드니의 파리 8대학, 빌타너즈(Villetaneuse)의 파리 13대학, 누아지르그랑(Noisy-le-Grand)의 고등 전기 기술학교, 셴에마른(Seine-et-Marne) 도의 국립 토목 학교 등이 이에 해당한다.

V. 결 론

산업체들이 도시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단지 정부 주도의 기업 이전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파리 지역의 높은 토지가격, 대규모 공장을 신축하기에 불충분한 공장부지와 지방에 비해 높은 임금 등 생산 가격을 높이는 모든 요인들이 공장 이전을 부추겼다. 한편 교통의 발달로 인한 교통비 가격의 인하와 상품의 신속한 이동 역시 이러한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자극하였다. 또한 회사의 성장으로 생산 단위별로 분리할 필요성으로 인해 일부 생산 공정분야가 이전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과도한 노동 집중은 관리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소요가 발생하는 위험도 내포하기 때문이었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탈산업화를 위한 정부의 산업체 확장 억제책과 이전을 위한 정부 보조금은 다양한 원인으로 공장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파리 지역의 탈산업화 현상에서 정부의 지원 하에 산업을 지방으로 이전한 비율은 미비했지만, 산업의 탈중양화 정책이 파리 산업에 미친 영향력은 컸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법률 또는 도시 계획으로 인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보다 폐업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 계획으로 인한 산업 이전은 근교보다 파리에서 많았으며, 벨빌과 이탈리아 지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탈산업화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으로 산업체 감소와 실업률 증가 이외에, 파리 지역의 인구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되었다.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자 산업 노동 인구는 감소하였고, 곧이어 노동 인구의 빈자리를 겨우 채운 것은 이민 인구였다. 정부의 파리 지역 재개발 정책의

결과인 탈산업화는 지방의 성장을 촉진시켰지만, 파리 지역의 유용한 생산 기구를 해체하고 유능한 인력을 낭비할 위험을 가진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부경대 사학과)

〈투고일자: 2017. 7. 23, 심사일자: 2017. 8. 7, 게재확정일자: 2017. 8. 10〉

▶ **주제어** :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기업 이전(industrial transfer), 도시 계획(urban planning), 파리 지역(Parisian region), 일드프랑스(Île-de-France).

참고문헌

1. 1차 문헌

- IAURP, *Schéma directeur d'aménagement et d'urbanisme de la région parisienne*, 1975.
- IAURIF, *La désindustrialisation de l'agglomération parisienne*, 1979.
- INSEE, *Fichier des Etablissements industriels et commerciaux*, 1960.
- _____, *L'économie régionale en 1980: population, emploi et comptes*, 1978.
- _____, *L'emploi départemental et sectoriel de 1989 à 2000*.
- _____, *Recensements de population*, 1990.
-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Avis et rapports du Conseil économique*, no. 8(6 mai 1959).
-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Décentralisation industrielle*(Paris: Imprimerie des Journaux officiels, 1956).
- Ministère de la Construction, *Décentralisation et localisation industrielle*(1955-1961).

2. 연구 문헌

- Bastie, Jean, *La croissance de la banlieue parisienne*(Paris: P.U.F., 1964).
- Choubersky, Pierre, Varague, S., "la politique foncière en région parisienne", *Espaces et sociétés, Revue critique internationale de l'aménagement, de l'architecture et de l'urbanisation*, no. 13-14(octobre 1974-janvier 1975).
- Fischer, André, "Stratégies spatiale - stratégies de développement; à propos de l'essor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Espaces et sociétés, Revue critique internationale de l'aménagement de l'architecture et de l'urbanisation*, no. 66-67(1992).
- Fontanon, Claudine, "l'industrialisation de la banlieue parisienne(1860-1960)", A. Fourcaut, *Un siècle de Banlieue Parisienne, 1859-1964*(Paris: L'Harmattan, 1988).
- Ganne, Bernard, "Politique publiques industrielles et systèmes d'aide aux entreprises en France depuis 25 ans", *Espaces et sociétés, Revue critique internationale de l'aménagement de l'architecture et de l'urbanisation*,

no. 88-89(1997).

Girardon, Jean, *Politiques d'aménagement du territoire*(Paris: Ellipses, 2010).

Lavedan, Pierre, *Nouvelle histoire de Paris*(Paris: Hachette, 1975).

Lokline, Jean, "La politique urbaine et stratégie de classe", *Espaces et sociétés, Revue critique internationale de l'aménagement de l'architecture et de l'urbanisation*, no. 1(novembre 1970).

Merlin, Pierre, *Les banlieues des villes françaises*(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8).

_____, *L'aménagement du territoire*(Paris: PUF., 2002).

Michel, Michel, "Un paysage industriel en mouvement", Jacques Girault, *Seine-Saint-Denis: chantiers et mémoire*(Paris: Autrement, 1998).

Soulinac, Françoise, *La Banlieue Parisienne*(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3).

〈Résumé〉

**La politique de décentralisation industrielle et
la réorganisation de l'entreprise en région parisienne après
la Second Guerre mondiale**

Eun-Ha LYU

À partir des années 1950s, le gouvernement français met en place une politique de décentralisation industrielle, ce qui signifie le transfert de l'entreprise hors de la région parisienne. Des mesures interviennent pour réglementer la création d'espaces industriels ou pour inciter à démolir. À cause de cette politique, la région parisienne perd plus d'usines qu'elle n'en accueille dans un premier temps, avec des variations selon les communes. Dans le département de la Seine-Saint-Denis, les communes très industrialisées sont touchées très tôt et plus fortement que ses voisines, puis le chômage y augmente fort. En revanche, la décentralisation s'accompagne, dans quatre cas sur cinq, d'un maintien du siège social à Paris, d'où la constante progression du secteur tertiaire en région parisienne, surtout à Paris qui devient un centre du commerce.

〈Abstract〉

**The French Policy of Deindustrialization and
the Reorganization of Industry in Paris after
the Second World War**

Eun-Ha LYU

Since 1950s, the french government carried out a policy of deindustrialization that signified the relocation of industry out of Paris and it's suburb. A various measures has taken place in order to regulate creation of industrial space or to incite demolition. Because of this policy, the Parisian region lost it's factory at first, but with variety from region to region. In the department of Seine-Saint-Denis, the most industrialized commune was affected very early and more deeply than neighboring commune by the deindustrialization, and unemployment has risen greatly. On the other hand, the industrial transfer was done without relocation of group headquarters. The corporate headquarter remained in Paris that became a center of headquarters, finance and commerce.